

# 언어 유형론과 개별 언어의 문법 기술\*

- 민족어 자료를 중심으로 -

高永根\*\*

이 논문은 언어 유형론에 기반한 개별 언어의 문법 기술 모형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언어 유형론과 개별 언어의 문법 기술의 관련성을 구명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어가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것이며 계통적 및 유형론적 비교에 있어서는 일본어, 몽골어, 터키어, 퉁구스어와 같은 알타이어도 활용될 것이다. 한국어는 형태적으로는 교착어에 속하고 통사적으로는 SOV 언어에 속한다. 중세 한국어는 형태음운론적 교체가 전국적(global)으로 실현되고 어간의 타동성 여부에 따라 어미가 달리 선택되는가 하면 어말 어미에 선어말 어미가 마치 접조사처럼 끼어들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중세 한국어를 터키어와 함께 종속적 교착어에 넣을 수 있다. 평서법과 의문법에서는 1인칭과 2인칭이 활용형에 유효적으로 실현되고 관계 관형절에서는 대상 범주가 파악된다. 교착어인 일본어도 중세한국어와 같이 굴절적인 특성이 파악된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중국어와 형태·통사적 양상이 다르지만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문자-언어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 공통 요소가 많다. 필자는 한 사례 연구로 한국어의 시상법을 전통적으로 같은 어족으로 처리되어 온 알타이어와 비교해 본 결과, 형태는 물론, 실현 방식에 있어서도 전혀 공통성이 없다. 일본어를 비롯한 알타이 제어의 시상법은 어말 위치에서 실현되는데 반하여 한국어의 시상법은 선어말 위치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핵심어: 교착어, 언어 유형론, OV 형 언어, 종속적 교착어, 동북 아시아 문자-언어 연합, 시상법

\* 본고는 훔볼트 재단(Alexander-von-Humboldt Stiftung)의 갱신 장학금(Erneutes Stipendium)(2009. 10~11)으로 수행한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linguistic typology and the grammatical description of individual languages”를 바탕으로 내용을 불린 것이다. 본고의 내용은 경상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집담회(2010, 6, 28)에서 발표한 일이 있고 국어학회 제37회 전국학술대회 석좌강의에서 내용을 보강하여 발표한 일이 있다.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1. 들어가기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우리 민족의 언어 유형론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는 이 방면의 국제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수년 전부터 한국에는 국제적으로 이름 있는 유형론 전문가들이 대거 방문하여 크고 작은 모임을 통하여 언어 유형론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왔다<sup>1)</sup>. 2008년에는 서울에서 제18차 국제 언어학자 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 언어의 단일성과 다양성을 주제로 한 책이 상재(上梓)되기도 하였다<sup>2)</sup>. 이와 동시에 『언어 유형론』이라는 3권의 책이 간행되었으며<sup>3)</sup>, 이를 전후로 하여 웨일리(L. J. Whaley)와 송재정(Jae Jung Song)의 언어 유형론 입문서가 번역된 바 있다<sup>4)</sup>. 2009년 9월에는 ‘언어 유형론 연구회’라는 단체가 결성되어 민족어를 비롯한 지구상의 여러 언어의 중요한 유형론적 문제가 논의된 바도 있다. 이상 언급한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민족의 언어학 연구에서 언어 유형론 분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깊은가를 잘 알 수 있다.

우리 민족어의 유형론 연구는 20세기 중반 유응호(1911~1994)에 의하여 처음으로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유응호는 도쿄대학 언어학과에서 독일의 소장 문법학파의 언어 이론과 19세기에 발흥한 유럽의 역사 언어학을 체득(體得)하였다. 그는 이전의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어가 교착어에 속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유응호는 그의 모어가 터키어<sup>5)</sup>와 같이 “중속적 교착

1) 이를테면 B. Comrie (Leipzig), M. Haspelmath (Leipzig), B. Heine (Köln), F. Plank (Konstanz), M. Shibatani (Kobe), H. Sohn (Hawaii), J. Song (Otago)를 들 수 있다.

2) 슈테르켄부르크 (Sterkenburg)(ed)(2008)이 그것이다.

3) 이기갑 밖에 (2008가, 나, 다)가 그것이다.

4) 웨일리와 송재정의 『언어 유형론』은 웨일리(L. J. Whaley)/김기혁(2008)(역), 송재정(Jae Jung Song)/김기혁(역)2009)에서 볼 수 있다.

5) 필자가 사용하는 터키어, 몽골어, 통구스어는 터키 공화국과 같은 좁은 의미의 언어를 가리키기보다는 터키어파, 몽골어파, 통구스어파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한

어”<sup>6)</sup>에 속한다고 규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중세 민족어는 현대 민족어와 비교할 때 더 굴절적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sup>7)</sup>. 한편 이희승은 알타이어를 비롯한 많은 언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민족어의 유형적 특징을 드러냄으로써 우리 민족어를 유형론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바탕을 조성해 놓았다<sup>8)</sup>.

지나간 60여 년 동안 한국의 언어학계에서는 구조 언어학과 생성 언어학에 몰두하는 나머지 유형론적 문제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언어학자들은 다른 언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민족어의 유형적 특징을 드러내는 연구에 열중하는 일도 없지 않았다<sup>9)</sup>. 북한의 언어학계는 “민족적 특성”이라는 특이한 언어 유형론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언어학계는 우리 민족어가 지닌 “부분적 유형론”(partial typology)<sup>10)</sup>의 특징을 발굴하는 데 있어 그 나름의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유형론적 고려가 이른바 주체 사상의 산물이라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적지 않은 유형적 특징을 발굴한 것으로 평가된다<sup>11)</sup>.

다.

- 6) 유응호 (1936)과 고영근 (1989/ 2002: 254)를 보라.
- 7) 이 문제에 대하여는 필자가 고영근 (1989/ 2002: 247-53)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본고의 영문 초고를 검토한 콤리 교수는 중세 민족어와 터키어가 “종속적 첨가어”에 속한다는 유응호의 견해가 자기에게는 분명히 다가오지 않는다 (‘unclear to me’)라는 논평을 붙인 바 있다. 유응호는 두 언어가 모음조화가 엄격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두 언어의 성격을 “종속적 첨가어”로 규정하였음을 밝혀 둔다. 피혜트레거 et al. (1998)에서는 자연 형태론의 생산성에 기대어 터키어를 이상적인 교착어로 규정하였으며 다음으로 헝가리어, 그 다음으로 핀란드어의 순서로 굴절성(inflexing-fusional ingredients)이 강해지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김완진 (1971: 118-30)에서 접미사의 이형태 중 하나가 모음으로 시작된다는 제약을 지적한 바 있다.
- 8) 이틀테면 이희승 (1955)을 비롯한 크고 작은 논문을 통하여 우리 민족어의 유형적 특징을 발굴해 내는 데 공헌하였다. 관련 논의는 고영근 (2010다: 262-67)를 보라.
- 9) 대표적으로 채완 (1982), 고영근 (1986)과 고영근 (2004)나의 1, 2부에 실린 논고를 들 수 있다.
- 10) “부분적 유형론”은 “전방위적 유형론”(holistic typology)과 대칭을 이루는 용어이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한다.

이상과 같은 나라 안팎의 움직임에 둘러볼 때, 우리 민족어에 초점을 맞추는 유형적 연구에 주의를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믿는다. 나아가 유형론적 연구에 기반을 둔 우리 민족어 문법 기술도 시도해 볼 만하다고 믿는다. 우리 어학계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굵직굵직한 문법서를 3권이나 출판하였지만<sup>12)</sup>, 구조 중심의 기술 문법을 지향한 탓인지 유형론적 고려를 통합한 자취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sup>13)</sup>. 이러한 관점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와 같은 서양어 문법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독일 언어학계는 지난 40여 년 동안 통일 전의 옛 동독을 포함하여 다섯 권의 굵직굵직한 문법서를 출판하였다<sup>14)</sup>. 그 가운데서도 가장 정력적으로 힘들여 쓴, 부피가 큰 문법서는 만하임(Mannheim) 소재 독일어 연구소(Institut für Deutsche Sprache)에서 나온 세 권짜리 문법서이다. 위의 문법서는 치포논 밖에(1997가, 나, 다)에 의하여 저술된 공동 저작물이며 랑·치포논(eds)(1996)에 의하여 수행된 기초 연구를 토대로 하였다. 필자는 이 책이 유형론적 고려를 포함한 최초의 문법서라고 생각한다. 비록 학생용 교재이기는 하나 하스펠마트(2002), 툴러멘(2005)에서 통언어적 현상<sup>15)</sup>을 반영한 많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중국과

11) 이 문제는 고영근(2008)에서 산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12) 서정수, 허웅, 박창해의 세 문법서를 가리킨다. 이들은 1200~2500쪽의 분량이며 그 가운데서도 허웅의 문법이 가장 부피가 크다. 허웅의 문법은 형태론과 통사론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세 문법서에 대한 서평은 고영근(2010가)을 보라.

13) 남기심·고영근(2011), 이익섭·채완(1999), 고영근·구본관(2008) 등 몇몇의 대학 학부용 문법서는 총론에서 우리말의 유형적 특징을 소묘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각론의 내용과 어느 정도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의심스러운 면이 많다. 해외에서 나온 손호민(1994)는 콤리·스미스(1977)의 조사표(Questionnaire)에 기대어서 집필된 민족어의 기술 문법으로 유형론적 배려가 깔려 있다. 손호민(1999)도 비슷한 성격의 저술이다. 그러나 두 저술 모두 민족어의 모든 문법 현상에 걸쳐 유형론적 사고가 수미일관 반영되어 있는지 속단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다른 기회에 언급하고자 한다.

14) 헬비히·부샤(2004), 하이돌프 밖에(1981), 앵겔(1982), 아이젠베르크(1986/1999, 2006), 플레미히(1991), 바인리히(1993), 치포논 밖에(1997가, 나, 다)과 같은 업적을 들 수 있다.

15) 필자는 ‘cross-linguistic’를 ‘범언어적’이라 번역해 온 관행을 버리고 ‘통(通) 언어

일본에서는 언어유형론에 바탕을 둔 문법서를 아직 발견할 수 없다<sup>16)</sup>.

언어 유형론과 개별 언어의 문법 기술의 관련성을 구명함에 있어서 우리 민족어가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필자는 헝가리어와 같은 우랄어는 물론, 일본어, 터키어, 몽골어, 통구스어도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이들 언어는 우리 민족어와 계통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매우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의 작업은 공인되어 있다시피 한 우리 민족어와 알타이 제어와의 친족 관계를 재검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sup>17)</sup>. 우리의 유형론적 연구는 궁극적으로 인간 언어의 본질을 해명하는 데 빛을 던져 줄 것이고 그것이 생성문법의 보편문법 (UG)와 어떻게 관련시킬 것인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할 것이다<sup>18)</sup>.

본고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 이론적 전제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하나의 언어가 표준어를 포함하여 많은 방언으로 성립되어 있을 때는 표준어의 유형적 특징을 필수적으로 밝혀 내어야 한다. 표준어의 유형론이 잘 마련되어 있어야 다른 언어나 다른 방언과의 유형론적 비교가 원활하게 수행될 것이다.

적'이라는 역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범'(汎)이라는 접두사는 '범태평양'과 같이 전체를 의미하지마는 '통'(通)은 언어를 서로 비교한다는 독일어의 'sprachvergleichende'를 참조하더라도 '통언어적'이 옳아 보인다. 우리 나라 영어 사전(금성판 영어대사전, 1992)에도 '통언어적, 여러 언어 비교의'라는 역어가 보이며 일본의 유형론 서적(마스모도 2006, 2007)에도 같은 역어를 볼 수 있다.

- 16) 오노 (2002)는 언어 유형론에 기반을 둔 기초 연구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쾰른 대학교의 박사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 17) 로비츠 (2005)는 담보 상태에 있는 알타이어 계통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주장만으로 알타이 어족이 성립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많은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18) 후쿠이(1995)는 우리말과 같은 구조를 지닌 일본어를 영어와 비교함으로써 원리와 매개변인을 탐색하는 보편문법이 언어 유형론과 접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의 가치가 있다. 언어 유형론과 생성 문법과의 관계가 상보적이라는 점은 시바타니·바이던 (eds) (1995: 14-19), 손호민 (2008)에서 지적되었다.

(2) 한 언어가 역대에 걸쳐 문헌을 가지고 있으면 각 시기의 언어 변화를 대상으로 한 통시 유형론(동적 유형론)을 세울 수 있다. 역사 언어학과 통시 유형론은 대상과 방법을 공유하는 같은 학문의 두 측면이다<sup>19)</sup>. 한 언어의 역사를 살펴보면 불변향이 있는 반면에 변향도 있다. 어떤 문법 현상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완전히 소멸된다면 이를 유형론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 언어의 유형론은 공시적 관점과 통시적 관점에서 불변향을 취합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믿는다. 문제는 변향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로 돌아간다. 불변향은 공존규칙(existing rule)으로 설명할 수 있고 변향은 확대규칙 내지 적응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20)</sup>.

(3) 한 언어가 지역에 따라 변화를 보여 주면 지역을 건너지르는 유형론적 변이를 목격할 수 있다. 이를 “지역적 유형론”(regional typology)이라 부른다. 지역적 유형론은 통시 유형론과 밀접한 유추의 기반을 이룬다. 한 언어의 방언 유형론은 통언어적인 유형론에 유추하면 이해가 쉽다. 여러 언어를 비교하면 각 언어의 유형적 특징과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듯이 한 언어의 방언을 비교하면 각 방언의 유형적 특징과 각 방언을 건너지르는 한 언어의 보편성이 드러난다<sup>21)</sup>. 이와 함께 한 언어의 문어와, 구어의 변종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4) 한 언어의 대표 유형론은 지역과 역사를 건너지르는 불변향에 의존한

19) 역사 언어학과 언어 유형론의 관계에 대하여는 로나-타스 (1970), 그린버그 (1978, 1995), 알트만·레펠트(1973: 53-60), 예썩 (Hg) (1994)을 참고하였다. 그린버그는 언어 유형의 변화를 통한 보편성 추구의 틀로 ‘state-process model’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언어에 대한 통시적 일반화를 유형론적으로 접근하는 중심 개념” (1978: 76)이다. 한편, 로나-타스는 역사 언어학 (HL)은 언어의 역사에 접근하는 것이고 언어 유형론(LT)은 인류의 사고에 접근하는 것이며 ‘역사, 사고, 언어’는 독자적이기는 하나 상호적임을 분명히 하였다. 양자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는 김방한 (1988: 191, 345)에서도 얻을 수 있다.

20) 필자는 고영근 (1993)에서 우리 민족어의 총체 서술을 겨냥하는 두 가지 규칙을 제안한 바 있다.

21) 코르트만 (ed) (2004)에 실려 있는 각 기고들은 주어진 언어의 유형론 연구에 있어서 방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방언의 변종을 통하여 통합적 기능론(integrative functionalism)과 동적 패러다임(dynamic paradigm)을 발견할 수 있다. 방언론과 유형론은 상보적 관계에 있다 (코르프트, 2002).

다. 한 언어의 대표 유형론을 친족관계에 있는 언어들과 비교하면 계통적 유형론이 성립되며 구조적으로 유사한 언어들과 비교하면 구조적 유형론이 성립한다. 계통과 구조가 다른 언어들이 서로 접촉해 있으면 지대적 유형론(地帶的, areal)을 세울 수 있다<sup>22)</sup>.

(5) 지구상의 언어는 계통적 유형론, 구조적 유형론, 지대적 유형론으로 하위 구분할 수 있다<sup>23)</sup>.

## 2. 민족어의 유형적 특징과 문법 기술

현대 민족어에는 두 개의 표준어가 있다. 서울 방언은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공통어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은 “문화어”라 부르는 다른 표준어를 마련하였다. 문화어는 1966년에 공포되었다. 이는 한자어, 일본어, 서양어를 배제한, 고유어 어휘로 성립된 북한의 표준어를 가리킨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문화어에 특유한 “유형론적 특징”을 “민족적 특성”이라 부르고 있다. 형태론적 특징을 고려하면 우리 민족어는 전방위적<sup>24)</sup>

22) “지대적 유형론”은 윌케 (1997)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Sprachbund’ (언어 연합)으로 불려왔다.(보레츠키 1977, 콤리 1989: 197-203)을 보라. 테스취·하이두 (1970)에 나오는 ‘local typology’은 개별 언어 ‘지대적 유형론’(areal typology)를 뜻한다. 이 방면의 연구는 유럽어 사용권에서 활발하다. 이 방면의 최근 연구로는 뤼스켄 (ed) (2008)이 있다.

23) 필자가 기대고 있는 세 유형론은 윌케 (1997: 22-61)에 근거하였다. 윌케는 필라고타마 (2003)에서 평가된 바와 같이, 통시적 발전과 지역적 변이 양상을 공시적 유형론적 기술과 성공적으로 통합한 저작으로서 한 언어의 총체 서술의 모형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본고의 초고를 검토한 콤리 교수는 유형론에는 구조적 유형론 하나밖에 없으며 계통적 유형론과 지역적 유형론은 구조적 유형론의 응용 분야이며 계통적 유형론 내지 지역적 유형론에서 이용되는 자질은 구조적 유형론에서 확인되는 구조적 특징이라는 의견을 붙였음을 언급해 둔다. 본고의 영문 초고를 검토한 Heine 교수도 콤리 교수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2010. 10. 28).

24) “전방위적”(全方位的)은 “부분적”(partial) 내지 “국지적”(local)의 대가 되는 말인데 “체계적”(systematic)과 동의어이다. 이를테면 한 언어가 후치사적이면 그 어순이 “SOV”임을 함의하고 전치사적이면 “SVO”를 함의함과 같다. 유형론을 두 가

인 관점에 설 때, 교착어의 테두리에 들어온다<sup>25)</sup>. 그리고 통사구조에 눈이 미치면 그것은 끝자리 동사 언어(final-verb language)에 속한다. 달리 말하면 그 어순이 SOV라는 말과 같다<sup>26)</sup>.

현대 우리 민족어가 전반적으로 보여 주는 교착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중세 민족어는 굴절어의 측면을 강하게 띠고 있다.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을 들어 보기로 한다.

첫째, 우리 민족어는 몇 가지 형태음운론적인 양상을 보여 준다. 현대 민족어에서는 명사와 동사가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모습으로 실현된다. 현대 민족어에서는 모음조화 규칙에 따라 어미가 교체되는 현상이 있다<sup>27)</sup>. 이 현상은 현대 민족어와 비교해 볼 때 중세 민족어에 더 규칙적으로 광범하게 나타난다<sup>28)</sup>. 이들 어미의 교체는 자동적

지로 나누는 문제는 라마트 (1986), 플랑크(1991)를 보라. 후자에서는 ‘유형론’이 가벨렌츠 (1894)에서 확립되었으며 처음 사용된 명칭은 ‘Hypologie’였다고 말하고 19세기 이래의 언어 연구와, 프랑스에서 발전된 생물학의 영향을 받아 잉태(孕胎)하였다고 유형론의 형성 경위를 자세히 밝혔다.

- 25) 언어의 유형적 가정(Konstruk)에 대한 고전으로는 스칼리스크 (1966)를 들 수 있다. 이곳에서는 연역적 유형론을 설정한 바탕 위에서 세계의 언어를 교착어, 굴절어, 고립어, 포함어, 내부 굴절어 (Introflexive sprache)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그 특징을 다각도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방향의 “교착성” (agglutination)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개괄적인 것은 플린지언 (2001)을 보고 전문적인 것은 플랑크 (1999), 하스펠마트 (2000)을 보라. 특히 뒤의 두 업적에는 굴절어에도 교착성이 있고 교착어에도 굴절성이 있다는 통언어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 26) ‘끝자리 동사 언어’는 ‘핵 끝 언어’ (head-final)라고도 한다.(톨러맨 2005)
- 27) 본고의 영문 초고를 중심으로 필자의 질의에 응한 콤리 교수는 현대 민족어의 모음조화는 ‘local’하기 때문에 ‘global’한 터키어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현대어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중세어는 의미부와 형태부 사이뿐만 아니라 어간 내부에까지 모음조화가 미치기 때문에 속단이 아닌가 한다. 김주원 (1988/1993)에서는 『訓民正音 解例』 (1446)에 나오는 “舌縮”의 개념을 1950년대 말부터 연구되기 시작한 “Retracted Tongue Root”로 해석하면 중세 민족어의 모음조화도 몽골어, 통구스어와 같이 “전방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김 교수는 인간 언어의 모음조화는 구개부 조화 (palatal harmony)와 설측 조화 (RTR harmony)의 둘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다.
- 28) 이 문제는 필자가 고영근 (1989)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 논문은 2002년에 이상

인 형태·음운론적 교체에 속한다. 중세 민족어의 모음조화는 플랑크·카박(2006)에서 제기된 터키어와 비교하면 그 실상을 잘 알 수 있다<sup>29)</sup>. 플랑크·카박(2006)에서는 교착어인 터키어와 우리 민족어에 굴절적인 측면이 파고드는 양상을 폭 넓게 구명하였다. 이런 점과 관련시키면 중세 민족어와 터키어가 “중속적 교착어”에 속한다는 유옹호의 견해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린다.

둘째, 중세 민족어에는 현대 민족어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 음운론적 교체가 나타난다. 동사의 어미 구조체 가운데는 두 종류의 어미가 실현되는데 하나는 무성음인 ‘ㄱ’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후두 유성음 ‘ㅇ’ 부류이다. 만약 끝소리가 반모음 ‘y’와 설측음 ‘ㄹ’이면 후자가 선택되고 그 밖의 환경에서는 전자가 선택된다. 이러한 교체는 비자동적 형태음운론적인 교체에 속한다<sup>30)</sup>. 비슷한 현상은 명사에 붙는 조사에서도 발견된다. 이런 문제도 앞의 모음조화와 함께 중속적 교착어의 특수성으로 거론될 수 있다.

셋째, 중세 민족어의 명사는 인도·유럽어와 같이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한 무리의 명사가 있다. 이를테면 시간을 뜻하는 ‘끼, 켈, 킷’는 그 어간을 ‘쁘’로 책정할 수 있지만 이 어휘는 결코 자립적으로 쓰이는 일이 없다<sup>31)</sup>. 끝소리가 ‘ㅎ’으로 상정되는 많은 명사는 단독으로 사용되면 그 ‘ㅎ’이 실현되지 않고 다음에 조사가 붙어야만 ‘하늘 혼, 하늘토’에서와 같이 ‘ㅎ’이 실현된다<sup>32)</sup>. 이런 현상은 현대 우리 민족어에는 보이지 않는다.

역 밖에(2002)에서 영문으로 번역되어 실려 있다.

29) 로포가로(2005)에 기대면 모음조화는 로망스어에 속하는 Central Sardinian의 몇몇 방언에서도 발견된다고 한다. 이들 언어가 로망스어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랄-알타이어와 같은 교착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음조화가 확인된다고 한다. 이들 언어에 나타나는 모음조화가 국지적인 것인지 아니면 전방위적인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콤리 교수의 논평을 참고적으로 들어 둔다.

30) 하스펠마트(2002)에서는 종전의 비자동적 교체 대신에 “morphological alternation”로 부르기를 제안하였다. 관련 논의는 고영근(2004가)를 보라.

31) 관련 논의는 고영근(1989/2004나: 14-15)를 보라.

32) 중세 민족어에 나타나는 ‘ㅎ’ 말음 체언의 음운론적 특성에 대하여는 이준환(2010)에서 다루어졌다.

넷째, 몇 개의 어미는 불연속적으로 실현된다. 한 어미가 사이에 끼어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어미를 갈라 놓는다<sup>33)</sup>.

이상의 몇 가지 예를 보면 전 시기의 우리 민족어가 순수한 교착어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 자리에서 몇 개의 형태·통사적인 문제를 유형론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활용형에 나타나는 동사 표지의 교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중세 민족어와 고대 민족어는 선행 동사가 타동사나, 비타동사나에 따라 동사 어미가 교체된다. 이를테면 ‘거’는 비타동사에 붙고 ‘어’는 타동사에 붙는다.

- (1) 가. 내 가 - 거 - 든  
나. 내 바블 머거든(먹 - 어 - 든)

(1가)의 어간 ‘가’는 자동사인 관계로 그것은 조건의 부동사의 환경에서 ‘거’를 취한다. (1가)와 대조적으로 (1나)의 어간 ‘먹’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조건의 연결 어미의 환경에서 ‘어’를 취한다. 위의 현상은 유형론적으로 볼 때 매우 특이해 보인다<sup>34)</sup>. 이 규칙에 대한 예외도 있다. 이는 능력성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중세 민족어에는 같은 동사가 자동사와 타동사로 공용되는 많은 동사가 있다. 자동사가 타동사 표지 ‘어’를 취한다면 이 구성은 능력 구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35)</sup>

둘째, 중세 민족어에는 주어 명사구가 화자일 때, 선어말 어미 ‘-오-’가 실현되는 일이 있다.

33) 자세한 내용은 고영근 (1991/ 2004나: 37-51)을 보라.

34) 동(東) 코카서스어(Caucasian)에 속하는 체치크어(Tsezic)에는 명령법이 자동사나 타동사나에 따라 형태론적으로 달리 표지된다. 곧 타동사에는 명령법 접미사가 ‘-o’로, 자동사에는 영 (zero) 어미가 붙는다. 관련 정보는 베르크(1995: 87)에서 얻을 수 있다. 우리 민족어와 다른 점은 타동사 표지만 나타나고 자동사 표지는 영이라는 사실이다. 유형론적 비교가 가능할지 재고의 여지가 많다.

35) 이 문제에 대하여는 고영근(1980/1999: 443-491, 1986/2004: 131-61)을 보라.

## (2) 나(나 I) 지배 가노라(가는 오 다)

(2)는 주어 명사구가 1인칭 ‘나’이기 때문에 선어말어미 ‘-오-’가 실현되어 있다. 이는 형식문법의 관점에 서면 일치 의 일종이다<sup>36)</sup>. 허웅(1958)에서는 1인칭 활용이라 불렀으나 필자는 견해를 달리하여 “화자 표지”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이 어미는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인칭에도 일치하여 사용된다.<sup>37)</sup>

(3) 누른 새는 저기 노로물 任意로 흐노(는 오)라(두시언해 20, 19)

실사 (3)의 주어 명사구 ‘누른 새’가 3인칭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화자 표지론이 1인칭론 표지론보다 설명력이 더 강하다고 하겠다<sup>38)</sup>. 이 현상은 정동사의 평서법과 접속 부동사에서만 실현되었다<sup>39)</sup>. 현대 민족어에서는 시문(詩文)의 평서문에서만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알타이 어족의 한 분파인 통구스어에는 많은 인칭 어미가 존재한다고 보

36) ‘-오-’를 일치 현상으로 다룬 대표적인 업적은 유동석 (1993/ 1995: 197-230, 327-51)을 보라.

37) 필자는 고영근 (1987/ 1997: 315)에서 정확한 범주의 설정을 미루어 왔던 것을 그 사이의 연구를 반영하여 고영근 (1987/ 2010나: 315)에서는 화자 표지에 의한 문법 범주의 실현을 “화자 표시법”이라고 그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였다.

38) 이런 경우 인도 유럽어에서는 3인칭 동사가 일치한다. 시소우 (2003: 12-15)에 의하면 타이어를 비롯한 동남아 언어에서는 고유 명사, 친척 용어, 보통 명사 등의 명사가 제1인칭과 제2인칭으로 전환되어 쓰이는 “특수한 전환자” (specialized shifter)가 많다. 우리 민족어에도 ‘본인, 소생’은 1인칭으로, ‘어르신, 닥’은 2인칭으로 전환되는 예가 많다. 중세어의 일치 현상과 함께 현대 민족어에 나타나는 명사의 대명사로의 전환에 대한 유형론적 조명이 요청된다.

39) “정동사”와 “부동사”는 원래 람스테트가 몽골어 형태론을 세울 때에 창안한 용어로 그렇게 일반성을 띤 용어가 아니다. 그러나 알타이 문법에서는 아직도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부동사”의 통언 어적 특징에 대하여는 하스펠마트·괴니히 (eds) (1995)에 실린 각 기고들을 보라.

고되어 있다. 이 현상은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독일어와 같은 인도-유럽어의 인칭 어미와 비교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중세 민족어의 화자 표지 ‘-오-’는 통구스어의 인칭 범주와는 사뭇 다르다<sup>40)</sup>. 오히려 몽골어의 시상법에 나타나는 주어 제약 현상과 비교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sup>41)</sup>. 뒤에서 보겠지만 중세 민족어는 의문법에서도 인칭 범주가 발견된다. 이 문제를 유형론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sup>42)</sup>.

셋째, 중세 민족어에는 앞의 (2)(3)의 ‘오’와는 성격이 다른 ‘오’가 있다<sup>43)</sup>.

- (4) 가. 내 고기를 잡-느-니라  
나. 내 잡논(잡-노(느-으) 고기
- (4') 가. 겨저비 아기를 나흐니라  
나. 아기를 나흐(냥-으-은) 겨집

(4나)는 평서형 어미 (4가)의 관형사절이다. (4나)에 나타나는 ‘느’은 관계화

40) 통구스어파의 어wing키어의 형태론과 그 범주의 기술은 콤리(1981: 71-76), 성백인 박에 (2010)을 보고 어wing키어의 인칭 어미에 대한 종합적 고찰은 김주원 (1985: 277-393)을 보라. 김주원 교수는 위의 논문에서 중세 민족어의 화자 표지는 어wing키어의 인칭 어미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콤리 교수는 필자와 교환한 메일에서 터키어와 통구스어파의 어wing키어의 인칭어미는 인도-유럽어의 인칭 어미와 병행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1) 이 문제는 이미 송재목 (1997, 2007)에서 지적된 바 있고 콤리 교수도 필자에게 비교 가능성을 비친 바 있다. 이런 것을 인칭 제약의 범주에 넣는다면 현대 민족어에서 회상법이 1인칭과의 통합에 제약을 받는 것 (고영근 2004/ 2007: 194)도 같이 다루어야 할 것이다.

42) 콤리 교수는 본고에 대한 논평에서 모든 터키어파와 대부분의 통구스어파(만주어 제외)는 인도-유럽어에 병행하는 성과 수의 어미를 가지고 있으나 몽골어에는 부리아트어를 제외하고는 성과 수의 어미가 없다고 말하고 이런 현상은, 김주원 교수의 언급과 같이, 중세 민족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였다.

43) 두 개의 ‘오’는 형태가 같다. 그러나 그 기능은 다르다. 정동사의 평서법과 접속 부동사에 나타나는 ‘-오-’는 존경법의 ‘-(으)시-’와는 결합될 수 없다. 반대로 관형사절의 ‘-오-’는 존경법과 결합될 수 있다.

표지이다. 사람들은 보통 우리 민족어의 관계화 표지로 ‘-(으)ㄴ’과 ‘-(으)ㄹ’을 잡지마는 이들은, 패러다임을 고려한다면, 단일 형태 ‘-(으)ㄴ’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sup>44</sup>). 관형사형의 ‘-오-’는 핵심명사(피수식어)가 (4나)의 ‘잡-’과 같이 선행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될 때 실현된다. 반대로 핵심명사가 주어일 때에는 (4가, 나)를 비교해 보면 무표적인 ‘∅’가 실현된다. ‘-오-’는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서형 구문이 관계절로 변형될 때 실현된다.

위의 현상을 유형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관형사형의 ‘-오-’의 실현을 “대상 활용”으로 정립한 허웅 (1958: 252)에서는 이 현상을 헝가리어와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비친 바 있다. 헝가리어에서는 동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부정적 (不定的, indefinite)이면 주어 활용을 하고 정적 (定的, definite)이면 목적어 활용을 한다<sup>45</sup>). 허 교수가 주장하는 “주체활용”과 “대상활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헝가리의 그것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sup>46</sup>).

44) 많은 언어는 서술성 구문과 관계절 구문의 형식이 같다. 그러나 현대 민족어는 정동사의 평서법은 ‘-다’이고 관계절은 ‘-(으)ㄴ’과 ‘-(으)ㄹ’로 실현되어 형식이 다르다. 그러나 중세 민족어에는 정동사에 신형과 구형이 확인된다. 만약 우리가 구형 ‘-(으)니라’를 원초적인 정동사의 평서법 어미로 잡는다면 우리는 단일형 ‘-(으)ㄴ’을 재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관형사형과 정동사의 평서법의 불일치도 해소할 수 있다 (고영근 1982/ 2004나: 165-78). 단일형 ‘-(으)ㄴ’은 구형인 정동사의 평서법 ‘-(으)니라’에서 유도된 것이다. 필자의 위의 견해에 대하여 콤리 교수는 레만 (1984)에 근거하여 두 경우의 형태가 같지 않은 언어도 상당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밝혀 둔다. 그것은 어쨌든 우리 민족어의 관형사형은 정동사의 평서법과 형태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의 견해는 동명사 ‘-나-, -르’이 정동사로 발달하였다는 우리 어학계의 통설 (람스테트 1939, 김완진 (1957)과는 상반된다. 이 문제는 고영근 (1981/ 2011: 30-34)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45) 헝가리어에는 “주어 활용”(Subjektive Konjugation)과 “목적어 활용(Objective Konjugation)”이 있다. 전자는 부정관사 등과 통합되고 후자는 정관사와 통합된다 (베세 et al. 121-22, 포르가스 2001: 71-115). 헝가리어의 두 활용형에 대한 정보는 부다페스트에서 알타이 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권혁양 님의 도움을 받았다. 헝가리어를 비롯한 우랄어의 “주체활용”과 “대상활용”에 대하여는 도쿠나가 (1955: 668)를 보라. 실제로 허웅의 “주체활용”과 “대상활용”은 도쿠나가 ((1955)에서 영향을 받았다.

46)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뒤의 논저, 이를테면 허웅 (1963: 197)에서는 헝가리어와의 비교 가능성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 허웅 (1958)이 나올 당시에는 우리 나라에

넷째, 중세 민족어는 의문법에서 흥미 있는 현상을 보여 준다. 흐라체의 의문법이 1인칭과 3인칭의 설명 의문법일 때에는 ‘오’ 계 어미를 취하고 반대로 판정 의문법일 때에는 ‘어’ 계 어미를 취한다.

(5) 가. 내 어되 가 는 뇨  
나. 네 지비 가 는 녀

(5가)는 어미 ‘뇨’를 취함으로써 흐라체의 1인칭의 설명 의문법이 되었고 (5나)는 어미 ‘녀’를 취함으로써 3인칭의 판정 의문법이 되었다. 통방언적으로 볼 때, 비슷한 현상이 경상도 방언에 확인된다<sup>47)</sup>. 위의 의문법의 문법은 통시적 유형론과 지역적 유형론이 밀접한 유추의 기반을 이룬다는 이론적 명제의 타당성을 합리화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중세 민족어에는 흐라체에서 2인칭 의문법이 확인된다.

(6) 가. 네 엇데 아는다(알 는 ㄴ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나. 네 믿는다(믿 는 ㄴ다) ‘네가 믿느냐’

(6)은, (5)와는 반대로, 주어 명사구가 흐라체의 2인칭 ‘너’이면 관계화 표지 ‘ㄴ’은 보조사 ‘다’와 함께 그 나름의 어미 구조체를 형성한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판정 의문법과 설명 의문법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리는 중세 민족어에 보이는 (2)(3)과 (5)(6)의 예를 통하여 중세 민족어에 인칭 범주를 세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서법에서는 1인칭이 유표적이며 2, 3인칭은 무표적이다. 다른 한편, 의문법에서는 2인칭이 유표적이고 1, 3인칭은 무표적이다. 평서법의 1인칭과 의문법의 제2인칭이 유표적이라는 것은 『월인석보』 권 9 (36장 상뒤)에 나오는 선숙(善宿)과 구라제(究羅帝)의 대화를 통하여 단적으로 증명된다.

---

서 알타이어 비교 언어학이 봄을 일으킬 때였고 허웅(1963)이 나올 당시는 알타이어 비교 언어학의 가능성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운이 일어날 때였다.

47) 관련 논의는 최명옥(1976), 강신항(1978)을 보라. 전자는 경남 서남 방언의 의문법을 다루었고 후자는 안동 방언의 의문법을 다루었다.

- (7가). 善宿 1 닐오디 “究羅帝여 네 命終한다(ㅎ ㄴ다) ‘선숙이 말하되 “구라제여, 네가 명종하였느냐”’  
 나. 주거미 닐오디 내 ㅎ마 命終호라”(ㅎ 오라) ‘주거미 말하되 “내가 이미 명종하였다”’

(7가)의 ‘-ㄴ다’는 ㅎ라체의 의문법으로서 2인칭 주어 명사구 ‘니’와 일치되어 있고 (7나)의 ‘-오라’는 1인칭 주어 명사구 ‘나’와 일치되어 있다,

앞에서 검토한 (2)(3)(5)(6)(7)을 중심으로 중세 민족어의 ㅎ라체의 평서법과 의문법에서 실현되는 인칭 범주의 상관 관계를 부정법 중심으로 보이기로 한다.

(8)

	1인칭	2인칭	3인칭
평서법	호라	ㅎ다	ㅎ다
의문법	ㅎ너	ㅎ다	ㅎ너

이를 유형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어쨌든 중세 민족어에는 인칭 범주를 세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언어에서 평서법에서는 1인칭이 확인되고 의문법에서는 2인칭이 확인된다는 보고가 있음을 덧붙여 둔다<sup>48)</sup>. 이밖에도 낙착점 부사격조사(흔히 여격)의 유정성(활동성) 표지, 준비법(흔히 상대높임법)과 공대법(흔히 경어법) 등을 들 수 있으나 상론을 피하기로 한다.

우리 민족어는 7세기경부터 우리 민족어 연구 자료가 전해진다. 특히 지난 40년 동안에는 표음문자의 한 유형인 구결로 기록된 많은 언어 자료를 발굴하여 왔다. 이러한 언어 자료의 발굴에 힘입어 고대 민족어에 대한 이해를 새로이 할 수 있게 되었다<sup>49)</sup>. 따라서 우리는 고대로부터 중세를 거쳐

48) 이 부분은 콤퍼 교수의 교시에 의존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아이켄발트 (2004: 123-130)을 보라. 이곳에서는 손호민 (1994)에 근거하여 우리 민족어의 주관성 형용사가 일본어와 함께 인칭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는 관점을 달리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대의 민족어에 이르기까지 전 시기를 아우를 수 있는 우리 민족어의 역사적 유형론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민족어는 6개 방언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도 방언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은 몇 개의 공존 규칙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반도의 남부에 자리잡은 제주 방언은 반도와는 다른 확대 규칙을 필요로 한다. 특히 제주방언의 동작상 체계는 매우 특이하다. 필요한 만큼의 확대 규칙을 다듬지 않으면 이 방언에 접근할 수 없다<sup>50)</sup>.

우리 민족어는 일본어와의 친족 관계를 둘러싸고 논의가 많지마는 구조적 관점에 서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점 우랄-알타이어, 특히 통구스, 몽골, 터키어에 대해서도 같이 말할 수 있다. 두 언어는 후치사를 공유하고 있고 이와 함께 격 어미, 보조사, 부동사가 있으며 통사론적으로는 동사-끝 자리 언어에 속한다. 그러나 일본어는, 앞에서 잠시 본 바와 같이, 굴절적 특성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sup>51)</sup>.

중국, 일본, 한국은 서로 이웃하여 있으며 역사적으로 모두 한자와 한문을 공식 문어로 사용해 왔다. 세 나라의 언어는 상이한 계통과 상이한 언어 구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사회에서는 월남과 유구도 포함됨) 그들은 한자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였다. 전통적으로 세 나라는 “한문 문명 지역” (Chinese Culture Area)으로 묶여 왔다. 그러나 필자는 “발칸 언어 연합” (Balkan Sprachbund)<sup>52)</sup>에 유추하여 “동북아 문자-언어 연합” (Nord-Ost Asien Schrift-Sprachbund)라 부르기로 한다. 필자가 “언어”보다도 “문자”를 앞세운 것은 필담 (筆談)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통 사회에서 조선의 통신사가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 가면 중국 관리들과

49) 이 방면의 연구는 구결학회 편 『口訣研究』와 남풍현 (1999, 2008)을 보라.

50) 제주 방언의 동작상 체계는 문숙영 (2006)을 보라.

51) 이 문제는 리근영 (1985: 11)에서 제기되었다. 북한의 조선어학자인 이근영 교수는 이를테면 ‘yomu’의 활용형 ‘yoma, yomi, yomu, yome’의 활용 방식은 굴절어의 그것과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어미가 어간에 직접 붙는 것이 아니라 동사가 굴절적으로 변화한 뒤에 붙기 때문에 굴절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52) “Sprachbund”의 개념은 보레츠키 (1977: 23)를 보라. 콤리 (1981: 12), 윌케 (1997: 58-61)에서 우리는 “areal typology, Areale Typologie”를 발견한다. 후자에서는 유럽에 다섯 내지 여섯 개의 언어 연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한자와 한문으로 의사 소통을 하였다.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만날 때는 한문을 사용하였다. 세 나라의 언어에는 한자에 기원을 둔 공통된 어휘가 많다. 세 나라의 언어는 음운론, 형태론과 통사론, 그리고 어휘론의 관점에 설 때 공통 연구 주제가 많다. 이상의 사실을 두루 고려할 때 세 나라 문자와 언어를 묶는 “동북아 문자-언어 연합”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53)</sup>.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자와 한문은 세 나라 사람들의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법 범주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한자 하나를 들어 보기로 한다. 이는 ‘가운데’를 뜻하는 ‘中’이다. 다음 예를 보자.

(9) 철수는 지금 밥을 먹는 중이다.

위의 예에서 ‘중’은 이미 고대 민족어 단계에서 중국에서 차용되어 처소격 표지에 사용되었다. 나아가 그것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어에서 진행상 표지로 사용되고 있다<sup>54)</sup>. 이 예는 동북아 문자-언어 연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공통 문법 요소로 채택된 것이다. 우리는 노력 여하에 따라 일본, 중국, 한국을 묶는 동북아 문자-언어 연합에서 공통 문법 요소를 얼마든지 가려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55)</sup>.

우리는 비슷한 예를 중세기의 세계 각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고전 한문을 포함하여 산스크리트어, 그리스어, 팔리어(Pali), 고전 아랍어, 교회 슬라브어, 라틴어와 같은 7개 언어 문화권은 독립된 문화권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경전 언어는 공통된 문어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동시에 그들의 국어 내지 민족어도 발전될 수 있었다<sup>56)</sup>.

53) 동북 아시아에서도 중국의 Qiughai-Gansu 지역의 중국·몽골간의 언어 연합(Sprachbund)이 다루어지고 있다. 관련 논의는 슬라터(2003)을 보라.

54) 자세한 논의는 고영근(2004/2007: 315-19)를 보라.

55) 대표적으로 이른바 분류어(흔히 분류사)가 세 언어에 분포되어 있는 점이다. 예 쟁(Hg)(1994: 85, 86, 103), 운터베크(1992, 1993)를 보라. 마쓰모토(2007: 109-22, 188)에는 분류어의 분포 양상이 나와 있다.

56) 공동 문어와 국어 내지 민족어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조동일(1999)를 보라.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는 『우리말 문법통론』(임시이름)을 유형론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기초 연구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우선 필자가 구상한 책의 기본 열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우리말 문법 통론』의 열개

- I. 총론
- II. 자소부와 음성부
- III. 형태음운부
- IV. 품사부
- V. 체언형태론
- VI. 용언형태론
- VII. 단어형성론
- VIII. 형태·통사부-문법범주론
  - 8.1. 격 범주
  - 8.2. 피동과 사동, 능격
  - 8.3. 서법범주(과 양태성)
  - 8.4. 시제(와 시간성)
  - 8.5. 동작상(과 동작성)
  - 8.6. 결어법
  - 8.7. 공대법
  - 8.8. 부정법
- IX. 통사부
  - 9.1. 통사부와 통사단위
  - 9.2. 기본문형
  - 9.3. 문장성분
  - 9.4. 어순
  - 9.5. 문장의 배합
- X. 통보·화용부와 텍스트 형성
  - 10.1. 통보화용부와 텍스트 형성
  - 10.2. 문헌어의 텍스트 분석
  - 10.3. 방언의 담화·텍스트 표지와 구비설화의 텍스트분석
  - 10.4. 시 창작과 어순의 특이성
  - 10.5. 서사시제의 공시대와 통시대
  - 10.6. 통보화용부와 텍스트형성의 유형론

필자의 문법 체계는 주로 문법의 핵심 부문인 형태부, 형태·통사부·통사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문법 기술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자소·음성부는 물론, 통보·화용부도 통합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자소·음성부를 둔 것은 문어와 구어의 문법을 통합·기술하기 위한 배려와 관련이 있고 통보·화용부를 둔 것은 텍스트를 문법체계에 끌어 넣어 문학과외의 접점을 탐색한다는 책략과 관련이 있다.

중전의 민족어 문법서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 머리에 형태론과 통사론에 관련되는 우리 민족어의 유형적 특징을 개관하는 정도에서 머물렀었는데 필자는 우리 민족어의 문법을 기술하는 각론에서는 물론, 각론의 끝에서도 유형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우리 민족어의 유형적 특징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문법을 서술하고자 한다<sup>57)</sup>.

### 3. 사례 연구

필자는 2004년에 부피가 큰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이라는 책을 상재(上梓)한 일이 있다<sup>58)</sup>. 이 책에서 필자는 우리 민족어의 시제와 동작상은 전 시기에 걸쳐 서법을 기반으로 하여 표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곳에서는 시제 (tense), 동작상 (aspect), 서법(mood)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시상법” (TAM)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에는 시제, 동작상, 서법을 다 포괄할 수도 있고 두 범주 내지 한 범주만을 지칭할 수도 있다<sup>59)</sup>.

현대 민족어는 시제와 서법이 독자적인 형태에 의하여 표시된다. 이들은 물론 서법 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57) 치포논 밖에(1997가, 나, 다)은 랑·치포논 (Hg) (1995)의 기초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개별 언어인 독일어의 문법을 유형론적 관점에서 기술한 대표적인 문법서로 간주된다 (앞에 나눔).

58) 이 책은 2007년에 보정판이 나오기도 하였다 (고영근 2007).

59) 관련 논의는 고영근 (2004/ 2007: 머리말과 463쪽)을 보라.

(10) 철수는 잠자리를 잡았습니다

(10)은 현대 민족어의 과거 시제가 독립된 형태로 표시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는 예이다. 그것은 형성소 ‘-었-’(-았-)<sup>60)</sup>에 의하여 표시된다. ‘-었-’은 미래 시제 ‘-겠-’과 계열 관계를 형성하여 시제 범주를 형성한다. 그 서법은 직설법이다. 그것은 ‘-았습니다’에 나타나는 구성소 ‘-니-’에 의하여 표시된다.

직설법 ‘-니-’는 구성소 ‘-다-’와 계열 관계를 형성한다. 구성소 ‘-다-’는 직설법 ‘-니-’에 대하여 회상법의 의미를 지닌다. 회상법은 직설법과 함께 사태를 현실적인 것으로 파악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서실법 (fact-mood)에 속한다. “직설”과 “회상”은 현실 세계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이를 “화식” (話式)으로 처리하였다<sup>61)</sup>. 다음 예를 앞의 (10)과 비교하면 그 기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sup>62)</sup>.

(10') 철수는 잠자리를 잡았습니다

구성소 ‘-다-’는 같은 회상법 ‘-다-’의 형태론적으로 조건 지어진 이형태이다.

만약 동작상을 표시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10)에 ‘-고 있다’를 붙인다.

60) 필자는 우리 민족어의 형태소 (더러 어소)를 구성소와 형성소로 나눈 일이 있다. 전자는 몇몇 제한된 어미와 결합하는 형태소이고 후자는 많은 어미와 자유롭게 결합하는 형태소를 뜻한다. 관련 논의는 고영근 (1993: 29-42)를 보라.

61) 고영근·구본관 (2008: 386)을 보라.

62) 본고의 초고를 검토한 콤폴리 교수는 회상법이 서법이 될 수 있는가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회상법은 “사실” (객관적 세계)을 표시하기 때문에 직설법 ‘-니-’와 함께 서실법 (fact-mood)에 속하고 ‘회상법’은 사실을 회상하여 표시한다는 점에서 붙인 이름이다. ‘회상’은 “직설”과 함께 전달 방식(manner of addressing)을 가리킨다.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evidential modality”는 회상법의 의미 범주를 중심으로 붙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영근 (1965-1999: 213, 2004/2007: 212-16, 233, 고영근·구본관 (2008: 385-89)를 보라.

(11) 철수는 잠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11)은 직설법 과거 진행상이다. ‘-고 있다’는 우언적 표현이며 이는 문법 형태화로 가는 과정에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서법과 시제만 나타나기도 한다. 위의 예는 시제, 서법, 동작상이 최대한으로 실현된 예이다. 현대 민족어의 정동사의 평서법과 그것이 변형된 관형 구성에서는 서법 형태소가 필수적으로 실현된다. 현대 민족어의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가 모두 서법 형태소를 기반으로 표현된다. 반면에 중세 민족어는 시제 표지를 위한 독립된 형태가 없었고 대신 서법 형태<sup>63)</sup>에 의존하였다.

(12) 네 어미 이제 惡趣에 이서 至極 受苦<sup>호</sup> 느 다

(12)에는 직설법 ‘-느-’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회상법 ‘-다-’, 추측법 ‘-(으)리-’와 계열 관계를 이루고 있다. 시제와 동작상의 관점에서 서면 ‘-느-’는 현재 시제와 진행상으로, ‘-다-’는 과거 시제와 진행상으로, ‘-(으)리-’는 미래 시제와 전망상으로 고쳐 해석할 수 있다. 만약 동작상을 표현하고자 하면 (12)에 다음과 같이 ‘-어 있다’를 붙였다.

(12') 네 어미 이제 惡趣에 이서 至極 受苦<sup>호</sup>아(어) 있 느 다

동작상 형태 ‘-어(으)아 있-’이 (12')와 같이 직설법에 붙으면 (12')는 직설법 완료상이 된다. 이 자리에 회상법 ‘-다-’, 추측법 ‘-(으)리-’가 대치되면 그것은 각각 회상법 완료상과 추측법 완료상이 된다.

방언에서도 시제와 동작상은 현대 표준 민족어와 같이 서법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된다. 반도에서는 미래 시제에 대하여 어떤 방언은 ‘-겠-’을, 어떤 방언은 ‘-(으)리-’를 사용한다. 과거 시제는 전 방언을 통하여 ‘-았-’이 사용된다. 이는 ‘-겠-’의 문법 형태화가 ‘-았-’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일어

63) 이곳의 서법 형태라 함은 “기본 서법”을 가리킨다. 중세어의 서법에는 기본 서법과 부차 서법이 있다. 전자는 “사실상”(factivity)과, 후자는 “양태·정감상”(modality-emotionalty)과 관련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난 사실과 관련이 있다.

반면 제주 방언에서는 시제의 자리에 동작상이 표시된다.

- (13) 가. 철순 일흐엿찌 (/ 철수는 일하였다)  
 나. 철순 일흐엿져 (/ 철수는 일하고 있다)  
 다. 철순 아적의 흐교레 갑서라 (/ 철수는 아침에 학교에 가고 있더라)

(13가)는 직설법 완료상이고 (13나)는 직설법 진행상이며 (13다)는 회상법 진행상이다. 제주방언의 시상법은 일차적으로 동작상을 표시하며 시제는 동작상의 2차적 기능이다. (13가)는 사건시가 발화시에 선행하는 직설법 과거이고 (13나)는 사건시가 발화시에 일치하는 직설법 현재시제, (13다)는 경험시 기준의 회상법 현재 시제이다.

제주 방언은 현대 표준 민족어의 영향을 받아 그 정체성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 제주도는 10세기까지는 독립된 부족 국가였다. 제주도가 반도에 통합됨에 따라서 제주 방언은 그 고유한 특징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는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sup>64</sup>). 그것은 어쨌든 제주 방언의 시상법이 아이누어와 비슷하다는 것은 유형론적으로 흥미 있는 문제를 제기한다. 아이누어는 일본어와는 달리 풍부한 동작상 체계와 함께 서실법, 서상법 등의 서법도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이 일찍부터 알려져 왔다<sup>65</sup>). 두 지역의 동작상이 유형론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 두 언어의 동일 계통론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sup>66</sup>). 최근에는 제주 방언의 진행상 형태 ‘-암ㅅ-’를 동작상이 아닌 시제로 해석해야 한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하

64) 제주 방언은 음운, 형태, 구문에 걸쳐 반도의 언어와 차이나는 것이 많다. 지난 세기 20년대부터 제주방언에 대한 연구 업적이 많이 나왔다. 제주 문화예술재단 (1995/ 2009)에서 제주어 사전을 낸 것만 보아도 이 지역어가 어느 정도 독자성을 띠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65) 관련 논의는 시바타니 (1990: 79-80)를 보라.

66) 삼성혈 신화는 민족 이동 내지 민족 접촉을 미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련 논의는 조동일 (2003)을 보라. 한편 신용하 (2005: 113-53)에서는 고구려 등의 북방 민족이 탐라국 성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삼성혈 신화의 백랑국은 일본이 아니라 강진 등의 남해안으로 보고 있다.

였는데<sup>67)</sup>, 이 보고가 사실이라면 제주 방언도 표준 민족어와 같이 서법에 기반을 둔 시제 체계를 확립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세 민족어의 시상법은 서법과 동작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500년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작상 표시의 우연적 형태는 문법 형태화를 거쳐 시제 형태로 변모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현대에 와서는 시제, 서법, 동작상의 3원적인 체계를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현대 민족어와 중세 민족어의 시상법은 유형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중세 민족어의 시상법은 고대 일본어와 매우 비슷하다. 고대 일본어의 시상법이 시제-동작상 중심이나, 아니면 서법-동작상 중심이냐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지만 스타센 (1997)에서는 후자에 손을 들고 있다<sup>68)</sup>. 우리 민족어와 일본어는 현대어의 동작상이 우설적 형태에서 발달되었다는 점에서 평행성을 보여 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 민족어의 과거와 미래 시제는 그 기원을 중세 민족어와 근대 민족어에 두고 있다<sup>69)</sup>.

그 밖에 몇 가지 관련된 주제를 다루기로 한다.

첫째, (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자 ‘中’은 중국, 일본, 우리 민족의 세 언어에서 진행상의 요소로 사용된다. (9)의 예를 처소격 표현으로 바꾸어 쓰면 다음과 같다.

(14) 철수는 밥을 먹는 중에 있다.

만약 한자 ‘中’이 문법 형태로 변하려면 직설법 관형사형 ‘-는’이 ‘中’에 선행하고 처소격 표시 ‘에’와 존재사 ‘있다’가 뒤에 따라와야 한다. ‘中’은 고유어 요소를 취함으로써 문법 형태화하고 있는 것이다.

진행상이 처소적 표현으로 표시되는 예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문제

67) 문숙영 (2006)에서 그런 견해를 볼 수 있다.

68) 스타센 (1997: 562)에서 해당 내용을 옮겨 둔다.

All authors whom I have consulted on the tense-aspect system of Classical Japanese state that his system was basically aspect-mood oriented.

69) 우리 민족어의 시상법의 변천에 대하여는 고영근 (2004/ 2007: 327-434, 2006)을 보라.

는 앤더슨 (1973)에서 처소 이론의 관점에서 폭 넓게 다루어진 바 있다<sup>70)</sup>. 앤더슨의 이론에 기대면 다음과 같은 예를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영어에서 찾을 수 있다.

- (15) 가. Ich bin (grade) beim Essen ‘나는 식사중이다’  
 나. Je suis en train de d’écrire une lettre ‘나는 편지를 쓰는 중이다’  
 다. tā (zhèng) zài niàn shū-ne(他正在念書呢) ‘그는 지금 공부하고 있다’  
 라. He is on working(비표준어)

(15가)는 독일어의 예인데 처소적인 ‘beim Essen’으로 표현되어 있다. (15나)는 프랑스의 예인데 역시 처소적인 ‘être en train de’로 표시되어 있다. (15다)는 중국어의 예인데 역시 처소적인 ‘zài’(在)로 표시되어 있다. (15라)는 영어의 예인데 역시 ‘is working’의 처소적인 우연적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여러 언어들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위와 같이 부분적 유형론에 관계되는 예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진행상의 보편적인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 (16) 반딧 비촌 帳을 버무리 슻차 가고 거의 주른 귀미테 걸여 기렛도다 (螢鑿緣帷徹 蛛絲胃鬢長)(두시언해 3:12)

(16)의 ‘기렛도다’에서 ‘길-’은 형용사로 사용되어 있다. 그런데 상태와 성질을 표시하는 형용사는 중세 민족어에서 동사의 기능도 발휘할 수 있다. ‘길-’에 위와 같이 완료상 ‘-옛-’(<-어 잇-)과 결합되면 일시적 동작(temporary action)을 표시한다. 이 현상은 통언어적으로 실현된다<sup>71)</sup>.

셋째, 우리 민족어는 이른바 증거성에 관련된 서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과거의 경험 내용을 회상하는 회상법을 가리킨다. 이 현상은 우리 민족

70) 앤더슨의 처소 이론과 이를 우리 민족어에 적용하는 문제는 고영근 (1980)을 보라.

71) 이 사실은 박진호 (2006)에서 지적되었다. 박진호는 이영경 (2003, 2007)에서 밝혀진 형용사의 동사 검용설을 믿지 않고 스타센 (1997)에 나오는 통언어적 증거를 이용하였다.

어 문법 연구의 초기부터 지적되어 왔다<sup>72)</sup>. 이 구성소는 현대 민족어에서 심리 형용사 구문을 제외하고는 1인칭 주어 명사구와는 결합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세 민족어에서는 1인칭과의 결합이 가능하였다. 의미론적으로 증거 양태에 관련되는 회상법은 반도의 현대 민족어와 중세 민족어뿐만 아니라 제주 방언에서도 확인된다. 비슷한 현상을 이웃 여러 언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현상이 터키어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19세기 말 독일 언어학자 A. 뮐러에 의하여 주목되었다<sup>73)</sup>. 한국 어학자인 고노 교수는 뮐러의 이론에 기대어 우리 민족어의 회상법을 터키어와 비교함으로써 유형론적 연구의 막을 열었다. 고노 교수는 랍스테트의 칼카 뭉골어 활용에 대한 연구에서 비슷한 현상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에는 우리 민족어의 회상법 ‘-더’를 터키어의 과거시제 ‘-DI-’와 과거완료 ‘-mls-’를 비교하는 작업이 휘쨌인(2002)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우리 민족어, 뭉골어, 티벳어에 나타나는 증거 표지와 주어 제약과의 관계가 송재목(2007)에서 밝혀지고 있다.

넷째, 우리 민족어의 동작상은 우리 민족어 역사의 전 시기에 걸쳐 우언적 형식에 의존하였다. 앞의 (12')를 다시 가져오기로 한다.

(17) 네 어미 이제 惡趣에 이서 至極 受苦 訶아(어) 잇 ㄴ 다. cf. (12')

중세 민족어에서 동작상은 서법과는 달리 항상 표시되지 않는다. 화자가 진행이나 완료와 같은 동작의 방식을 표현하고자 할 때 동작상이 표시되었다. (12)는 사태를 단순하게 파악하는 데 대하여 (17=12')은 동작이 완료(지속)되는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어간 ‘受苦訶-’에 완료의 동작상 형태가 붙

72) 이를테면 박승민(1931/ 1935)와 최현배(1937)을 보라. 관련 내용은 고영근(2004/ 2007: 47-48)에 정리되어 있다.

73) 이 정보는 고노(1948/ 1979: 481-498)에 실린 것을 이카라시 교수의 번역(고노 로구로/ 이카라시 고이치(2006)을 통하여 보았다. 고노 교수의 논문에는 정확한 서명과 연대가 나와 있지 않아 다음과 같이 보충하는 바이다.

August Müller, *Türkische Grammatik* mit Paradimen, Literatur, Chrestomathie und Glossar, Berlin: Reuther[u.a.], 1889, VIII, 136 S(Porta Linguarium Orientarium; 11)

었다<sup>74</sup>). 이 예는 동작상이 어간에 가장 가까이 붙고 다음으로 시제, 서법이 붙는다는 통언어적 증거를 만족시키고 있다<sup>75</sup>). 중세 민족어는 ‘동작상-기본 서법-(부차 서법)’의 순서이고 현대 민족어는 ‘동작상-시제-기본 서법-(부차 서법)’의 순서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우리 민족어의 시상법 (TAM)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어와 구조적 친근성이 있는 알타이 제어와의 유형론적 비교를 시도해 보려고 한다. 우리 민족어의 시상법은 원칙적으로 선어말 어미와 우언적 형식에 의하여 실현된다. 현대 민족어의 시상법 중 시제는 형성소에 의하여 표시되고 서법은 구성소에 의하여 표시된다. 중세어와 고대 민족어의 시상법 중 기본 서법은 구성소에 의하여 표시된다. 중세 민족어의 기본 서법 표시의 선어말 어미는 현대 민족어에 비하면 형성소에 가까우나 본질적으로는 구성소에 속한다<sup>76</sup>). 그러니까 시제는 근대 민족어 단계에서 형성되었다. 고대 민족어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본 서법은 구성소에 의하여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sup>77</sup>). 동작상은 전 시기에 걸쳐 우언적 형식에 의존하였다.

먼저 일본어의 시상법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기로 한다. 현재 시제는 어말어미 ‘-ru’에 의지하고 과거 시제는 ‘-ta’ 표시된다 (시바타니 1990). 고대 터키어와 현대 터키어에서는 시상법이 다음 (18)과 같이 선어말 위치 (prefinal position)에서 실현된다.

- (18) 가. *Qıl - t im*  
do - PERF 1SG  
‘ I have done ’  
나. *Git - ti - k*  
go past 1PL  
‘We went’

74) 중세 고대 및 중세 민족어의 동작상의 형성에 얽힌 문제는 고영근 (2006)에서 다루었다.

75) 관련 논의는 마이비 (1985: 34, 196)를 보라.

76) 이 문제는 고영근 (1993: 38)을 보라.

77) 중세 민족어의 서법체계에 대하여는 고영근 (1981/ 2011: 3장), 고대 민족어의 그것에 대하여는 고영근 (1998/ 2001: 329-30, 2004/ 2007: 388, 2006)을 보라.

(레위스 1967: 178), 스타쎌(1997: 384)

(18가)에서는 고대 터키어의 완료상 표지 ‘t’가 1인칭 단수 어미 ‘im’ 앞에서 실현된다. (18나)에서는 현대 터키어의 과거시제 표지 ‘ti’가 역시 1인칭 복수 어미 앞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인칭 어미를 제외한다면 일본어와 같이 시제 표지는 어말의 위치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sup>78)</sup>. 비슷한 현상을 통구스어 어파의 어윙키어에서 발견할 수 있다.

- (19) əii -m əə -ćəə -n saa -rəsi  
 mother 1SG NEG past 3SG know you  
 tənəwə əmə -nəə -wəə -s  
 yesterday come RESULT-PART ACC 2SG  
 ‘my mother doesn’t know that you arrived yesterday’  
 (콤폴리 1981: 83)

(19)에서 과거 시제 ‘ćəə’가 표지되는 방식은 터키어와 같이 선어말 위치이다. 어윙키어도 터키어와 같이 시상법의 실현 위치는 선어말이라고 할 수 있다. 터키어와 통구스어의 시상법이 실현되는 방식이 우리 민족어와 비슷한 점은 흥미 있게 보이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민족어에는 어말에 인칭 어미가 오는 일이 없고 수(數, number)도 두 언어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으로 삼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몽골어의 시상법의 실현 양상을 보기로 한다.

- (20) 가. Manu bayši marvi iremüj  
 our teacher tomorrow come -nonpast  
 ‘Our teacher will come to-morrow’  
 (포빠 1954: 164)
- 나. Quoyar kümün bayišing ditora orobaj  
 two person house within enter-past  
 ‘The two of them entered the house’

78) 이 문제는 콤폴리 교수의 논평에서 제기되었다.

(스타센 1997: 386)

(20)은 문어 몽골어에서 가져왔다. 터키어와 통구스어와는 달리 인칭과 수를 표시하는 어미가 없다. 몽골 구어인 칼카 몽골어도 차이가 없다. 브리야트어에는 인칭과 수를 표시하는 어미가 있다<sup>79)</sup>. 몽골어의 시상법은 일본어와 같이 어말의 위치에서 실현된다. TAM이 우리 민족어와 같이 선어말 위치에서 실현되는 언어는 알타이 어족 가운데서는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시상법에 관한 한, 친족 관계를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유형론적으로도 실현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 휘 갑

지금까지 필자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우리 민족어의 문법을 기술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사례 연구를 통하여 시상법의 유형론을 문법 기술에 통합하는 문제를 제기해 보았다. 먼저 유형론을 문법 기술에 통합하는 이론적 전제를 몇 가지 든 다음, 유형론적으로 의의를 갖는 우리 민족어의 음운, 형태, 통사, 특히 형태-통사적 문제를 거론하였다. 논의 결과를 간추려 보기로 한다.

(1) 전방위적 관점에 설 때, 우리 민족어는 교착어에 속하며 특히 중세 민족어는 음운과 형태 면에서 터키어와 함께 굴절성이 강하게 파악되는 “중속적 교착어”에 속한다.

(2) 유형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형태·통사적 주제는 낙착점 부사격 조사(흔히 여격)의 유정성(활동성) 표지, 동사의 활용에 나타나는 ‘거/어’의 교체, 화자 표시법과 대상 표시법, 설명 의문법과 판정 의문법, 2인칭 의문법과 1·3인칭 의문법, 존비법(흔히 상대높임법)과 공대법(흔히 경어법)이며

79) 칼카 몽골어와 브리야트의 예는 스타센(1997: 386-87)을 보라.

이들을 유형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특히 이곳에서는 우리 민족어 특유의 인칭 범주의 설정을 제안하였다.

(3) 통 민족어의 역사와 방언을 대상으로 한 통시 유형론과 지역적 유형론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4) 한자 사용 국가인 동북 아시아를 문자 - 언어로 묶는 “동북아 문자-언어 연합”이라는 지대적 유형론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5) 우리 민족어를 일본어 등의 알타이 제어와 비교함으로써 구조적 유형론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6) 유형론에 기반을 둔 『우리말 문법통론』의 임시 목차를 ‘자소·음운부, 형태음운부, 품사부, 형태부, 단어 형성부, 형태·통사부, 통사부, 통보·화용부에 걸쳐 제시하고 각 항목별로 유형론적 고려를 배치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7) 마지막으로 사례 연구로 전 민족어의 시상법에 유형론을 통합하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 1) 고대 민족어와 중세 민족어는 서법-동작상 중심의 체계이고 현대 민족어는 시제-서법-동작상 중심의 체계이다. 시제와 서법은 선어말의 위치에서 나타나고 동작상은 전 시기에 걸쳐 우설적 방식에 의존하였다. 반도의 고대 및 중세 민족어의 시상법은 고대 일본어와 유형론적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제주 방언은 반도와는 다른 동작상 중심의 체계이며 아이누어와의 유형적인 공통성이 인정된다.
- 2) 현대 민족어에서 실현되는 진행상의 처소적 표현은 많은 언어에서 나타나며 중세 민족어의 완료상은 일시적 동작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역시 통언어적 특징을 보여준다,
- 3) 우리 민족어가 “증거성”에 관련되는 회상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몽골, 터키어뿐만 아니라 티벳어에도 실현되는 통언어적 현상이다.
- 4) 우리 민족어의 전 시기에 걸쳐 확인되는 우설적인 동작상 형태는 어간에 바로 붙는데 이 역시 통언어적 현상이다.

- 5) 일본어를 비롯한 알타이 제어의 시상법은 어말의 위치에서 실현되어 선어말 위치에서 실현되는 우리 민족어와는 하등 공통성이 없다.

우리 민족어의 문법을 기술함에 있어서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우리의 전통적인 문법 모형과 알타이 문법 모형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할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곳의 알타이 문법 모형은 람스테트의 *A Korean Grammar* (1939)를 가리킨다. 후치사와 침사를 비롯하여 동사의 어미를 정동사 (*verba finita*), 부동사 (*converbum*), 동명사 (*verbal noun*)로 나누는 문법 모형을 가리킨다. 람스테트의 문법 모형은 원래 람스테트의 “Über die Konjugation des Khalkha Mongolischen” (MSFO, 1902)에서 발아(發芽)하여 발전된 모형이다. 현행 학교 문법은 최현배 등이 개발한 전통적 모형을 따르고 있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언어학자들이나 젊은 문법가들은 생성 문법 모형을 선호한다. 역사 언어학자들은 오래 동안 알타이 문법 모형을 준수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부분적으로 전통 문법으로 복귀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sup>80)</sup>. 북한은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을 차별화하지 않는다. 대체로 주시경의 문법모형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

각 모형은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학교문법은 워낙 오래 동안 검증을 받아 적용하여 왔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어 문법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는 데 적합하다. 그러나 문법 지식을 대외적으로 보급하고 계통을 논의하는 데는 아직도 덜 다듬어진 면이 많다. 알타이 문법 모형은 우리 민족어의 역사와 그 계통을 논의하는 데는 그 나름의 장점이 있으나 학교 문법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생성 문법 모형은 많은 언어의 문법 기술에 응용되고 있으나 역사 문법과 학교 문법에 적용하려면 많은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sup>81)</sup>. 우리 민족어 문법에 알타이

80) 이기문 (1972)과 이기문 (2002)을 비교해 보면 문법 체계의 변모 양상을 잘 알 수 있다.

81) 하스펠마트 교수는 필자와의 대담 (2009. 12. 1)에서 생성 문법 모형을 학교문법

어 문법 모형을 적용하는 데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는 부동사를 세우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사”는 랍스테트가 칼가 몽고어 문법을 기술할 때 처음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랍스테트는 동사를 “Echte Verbal Formen” (정동사), “Nomina Verbalia” (동명사), “Converba” (부동사)의 셋으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서 첫째 것은 랍스테트 (1928, 1939)에서 “Verba Finita”로 대체되었으며 랍스테트·아알토 (1952)에서도 채택되었다.

필자는 부동사에 대한 하스펠마트의 소견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하스펠마트는 부동사에는 시제 (동작상)와 서법은 물론 그들 논항과의 일치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어의 부동사는 시제와 서법 요소를 취할 수 있고 존경법과 겸손법과의 일치가 표지된다. 중세 민족어에는 (2)와 (3)에서 본 바와 같이, 주어 명사구가 화자이면 부동사에 일치 현상이 표지된다. 둘째로 하스펠마트·콰니히 (1995)에서 다시 정의된 바와 같이, 부동사는 동사적 형용사인 “Participle”(관형사형)에 병행하는 “verbal adverb” (동사적 부사)로 보았다. 우리 민족어의 대부분의 부동사는 부사절처럼 행동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병렬 구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sup>82)</sup>.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랍스테트로 대표되는 알타이 문법 모형을 취하였으나 앞으로 나올 『우리말 문법 토론』에서는 필자가 고영근 (1993)에서 세운 문법 모형을 따를 것임을 덧붙여 둔다. 정동사는 “종결토”로, 부동사는 “접속토”로 처리하고 이를 다시 “대등접속, 종속접속, 보조접속”으로 하위분류하는 방식을 취한다. “부동사”는 통언어적으로 확인되는 문법범주이기는 하나 그 용어에 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sup>83)</sup>.

---

에 적용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82) 2009년 12월 2일에 가진 대담에서 하스펠마트 교수는 “converb”가 통언어적인 문법 범주라 제안한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하였다. “부동사”란 범주가 통언어적이란 하스펠마트 등의 기고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비켈 (1998)에 잘 나타나 있다.

83) 필자에게 보내온 하스펠마트 교수의 견해의 일절(2009. 12. 5일자 메일)을 다음

우리 민족어 연구의 어제를 돌아켜볼 때, 사람에 따라 유형론적 고려를 가미하는 일이 없지 않았으나 산발적이고 단속적이어서 어떤 흐름을 형성하는 데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민족 어학과 민족어 문법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는 외적 기반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만큼 원리와 매개 변인을 탐색하는 생성문법과의 접점을 탐색하는 작업도 그 전망이 흐리다고 할 수 없다. 우리 민족어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는 오래 동안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우리 민족어의 계통론 연구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 줄 수 있다<sup>84</sup>. 수년 전에 나온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연구소의 『세계언어구조지도』(WALS) (2005) 등의 언어 유형론적 업적과 관련시키면 우리 민족어의 유형적 특징을 과거 어느 때보다 분명히 밝힐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개척 분야인 동북 아시아 문자-언어 연합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 참 고 논 제\*

\* 이 참고논저에는 원칙적으로 정식 학술지에 실린 것만 게재 면수를 밝혔다. 같은 사람이 같은 해에 두 편 이상을 발표하였을 때에는 ‘홍길동(2002) 가, 나, 다 …’로 구분하였다. 빗금(/)을 경계로 하여 연대를 이중으로 적은 것은, 앞의 연대는 처음 발표된 연대를, 뒤의 연대는 단행본에 실린 연대를 가리킨다. 전자에는 게재 면수를 밝히지 않았고 후자에만 게재 면수를 적었다. 이는 오래된 학술지를 탐색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기 위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 둔다. 성명은 한글로 적되 과거에 한자 성명을 사용한 학자들은 먼저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한자 성명을 밝혔다. 일본인과 중국인들은 현지음대로 한글로 적되 괄호 안에 한자 성명을 적었다. 서양인도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

에 옮겨 둔다.

So as I said, I wouldn't worry so much whether to work in Ramstedt's, or the traditional or the generative model -- I think every linguist should choose his own model, the one he thinks is best.

하스펠마트의 견해는 하스펠마트 (2008)에 자세히 나와 있다.

84) “環太平洋言語圈”을 도입함으로써 일본어 계통론의 새로운 지평을 탐색하는 마스시다 (松下克己) (2006, 2007)이 참조된다.

- 가벨렌츠 (1894), Gabelenz, G. von der (1894), “Hyologie der Sprache, eine neue Aufgabe der Linguistik.” *IF* 4, 1-7.
- 강신항 (姜信沆) (1978), 「安東方言의 說明法과 疑問法」, 『언어학』 3, 9-27.
- 고노(河野六郎) (1948), 「朝鮮語의 過去 deに就いて」, 『東洋語研究』 4(고노, 河野六郎著作集 1. 1979: 481-98).
- 고노 (1948)/이카라시 고이치(역) (2006), 「고노로구로의 朝鮮語의 過去 deに就いて」 (1948)의 번역, 『형태론』 8.1, 217-35.
- 고영근 (高永根, Yong-Kun Ko) (1980), 「處所理論과 動作相」, 『蘭汀南廣祐華甲紀念論叢』 (일조각), 531-41.
- 고영근 (1982가), 「주시경의 문법이론에 대한 형태·통사적 접근」, 『國語學』 11, 25-46.
- 고영근 (1982나), 「관형사형어미와 서술성어미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冠嶽語文研究』 7, 1-56.
- 고영근 (1986), “Zum Verhältnis zwischen morphologischen Merkmalen und syntaktischen Strukturen,” *SAIS Arbeitsberichte* 8, 83-94.
- 고영근 (1989), 「國語의 形態的 類型性」, 『而靜鄭然燦博士回甲紀念論叢』 (담출판사), 628-39.
- 고영근 (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일지사.
- 고영근 (199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개정판), 집문당.
- 고영근 (1999), 『國語形態論研究』 (增補版), 서울대학교출판부.
- 고영근 (2001), 『한국의 언어 연구』, 역락.
- 고영근 (2002), “On the morphological typology of Korean,” Sang-Oak Lee et al (eds.), *Pathway into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ssays in honor of Young-KeyKim-Renauld* (Pagijoung Press), 185-201.
- 고영근 (2004가), 「형태소의 교체와 형태론의 범위」, 『國語學』 46, 19-51.
- 고영근 (2004나), 『단어 문장 텍스트』 (보정판), 한국문화사.
- 고영근 (2006), 「시상법의 변천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와 있는가』 (태학사), 215-242.
- 고영근 (2007),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보정판), 태학사.
- 고영근 (2008), 『북한의 문법 연구와 문법 지식의 응용화』, 한국문화사.

- 고영근 (2010가), 「연희 동산의 세 문법서」, 『형태론』 12.1, 147-67.
- 고영근 (2010나),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제3판), 집문당.
- 고영근 (2010다), 『민족 어학의 건설과 발전』, 제이앤씨.
- 고영근 (2011), 『중세국어의 사상과 서법』 (제4판), 탑출판사.
- 고영근·구본관 (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되스최·하이두 ((Deszö and Haidú) (eds) (1970), *The Theoretical Problems of Typology and the Northern Eurasian Language*, Budapest: Academiai Kiado.
- 그린버그 (J. H. Greenberg) (ed) (1966), *Universals of Language*, 2nd ed, The MIT Press.
- 그린버그 (1978), “Diachrony, Synchrony and Language Universal,” 그린버그 et al. (eds) (1978), Vol. 1, 61-91.
- 그린버그 (1995), “The Diachronic Typological Approaches to language,” 시바 타니·바이닌 (eds) (1995), 145-166.
- 그린버그 (2005), *Language Universals* with a preface by Martin Haspelmath, de Gruyter.
- 그린버그 (ed) (1978),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Standford University Press.
- 김방한 (1988), 『歷史-比較 言語學』, 민음사.
- 김완진 (金完鎭) (1957), 「n, l 動名詞의 통사론적 기능과 발달에 대하여」, 『國語研究』 2.
- 김완진 (1971), 『國語 音韻體系의 研究』, 일조각.
- 김주원 (1985), 「통구스 제어의 人稱語尾」, 『歷史言語學』(전예원), 277-303.
- 김주원 (1993), 『모음조화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김주원 (Kim, Juwon) · 고통호 (Ko Dongho) · 차오케 (Chaoke D. O.) · 한유평 (Han Youfeng) · 플라오 (PLAO Lianyu) · 볼드레이 (BOLDYREV) (2008) (2008), *Materials of Spoken Manchu*, SNU PRESS.
- 남기심·고영근 (1993), 『표준 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 남기심·고영근 (2011), 『표준 국어문법론』 (제3판), 탑출판사.
- 남풍현 (南豐鉉) (1999), 『口訣研究』, 태학사.
- 남풍현 (2008), 『古代國語研究』, 시간의 물레.

- 도쿠나가 (徳永康元)(1955), 「ハンガリ-語」, 市河三喜·服·部四郎 共編, 『世界言語概説』 下卷(研究社), 639-679.
- 데스췌 (Deszö)와 하이두 (Haidú) (eds) (1970), *The Theoretical Problems of Typology and the Northern Eurasian Language*, Budapest: Akademiai Kiado.
- 라마트 (P. Ramat) (1986), “Is a holistic typology possible,” *Folia Linguistica* 20.4, 3-14.
- 람스테트 (G. J. Ramstedt) (1939), *A Korean Grammar* (MSFOu 82), Helsinki
- 람스테트·아알토 (P. Aalto) (1952), *Einführung in die altaischen Sprachwissenschaft* II (MSFOu 104-2).
- 랑·치포눈 (E. Lang und G. Zifonun) (eds) (1995), *Deutsch typologisch* (Institut für Deutsche Sprache: Jahrbuch 1995), Walter de Gruyter.
- 레만 (Christian Lehmann) (1984), *Der Relativsatz*, Tübingen: Narr.
- 레위스 (G. L. Lewis) (1967), *Turkish Grammar*, Oxford: The Clarendon Press.
- 로나 - 타스 (A. Róna-Tas) (1970), “Historical linguistics, linguistic typology, linguistic relationship,” in., Deszö and Hajdú(eds), 146-149.
- 로비츠 (M. I. Robbeets) (2005), *Is Japanese Related to Korean, Tungusic, Mongolic and Turkic?*,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 로포카로 (M. Lopokaro) (2005), “The typological remarks on Sardinian: Vowel Harmony, 2. Sardinian in a correlative of the Romance language,” *Sprachtypologie und Universalien* 58 (STUF), 210-227.
- 뢴케 (Th. Roelcke) (1997), *Sprachtypologie des Deutschen: Historische, regionale und funktionale Variatione*. (Sammlung Götschen, 2812), de Gruyter.
- 리근영 (1985), 『조선어리론문법』, 평양: 과학백과사전.
- 마스모토 (松本克己) (2006), 『世界言語への視座 - 歴史言語學と 言語類型論』, 東京: 三星堂.
- 마스모토 (2007), 『世界言語のなかの日本語 - 日本語系統論の新たな地平』, 東京: 三省堂.
- 매린슨 (G. Mallinson and B. J. Blake) (1981), *Language Typology-Cross-linguistic Studies in Syntax*, North-Holland.

- 문숙영 (2006), 「제주방언의 ‘-엄시.’의 범주와 관련된 몇 문제」, 『형태론』 8.2, 393-403.
- 뮌스켄 (P. Muysken) (ed) (2008), *From Linguistics areas and Areal Linguistics*, Benjamins.
- 뮐러-고타마 (F. Müller-Gotama) (2003), “Book Review: Th. Roelcke, *Sprachtypologie des Deutschen* (1997),” *Linguistic Typology* 7, 417-419.
- 마이비 (J. Bybee) (1985), *Morphology*, Benjamins.
- 마인리히 (Herald Weinrich) (1993), *Text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Duden.
- 박승빈 (1935), 『朝鮮語學』, 朝鮮語學研究會.
- 박진호 (2006), 「중세국어에서 형용사와 결합하는 “-어 잇-”의 상적 의미」, 『口訣研究』 17, 227-242.
- 박창해 (2006), 『현대 한국어 통어론 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 베르크 (Helma van den Berg) (1995), *A grammar of Hunzib*. Munich/Newcastle: Lincom Europa.
- 베세·데스츰·굴랴 (L. Bese, L. Deszö, J. Gulya) (1970), “On the syntactic typology of the Uralic and Altaic Languages,” in 데스츰·하이두((Deszö and Haidú) (eds), 113-28.
- 보레츠키 (Boretzky) (1977), *Einführung in die historische Linguistik*, RORORO.
- 비켈 (B. Bickel) (1998). “Review article of Haspelmath & König, eds., *Converbs in cross-linguistic perspective* (1995),” *Linguistic Typology* 2, 381-97.
- 서정수 (1994), 『국어문법』, 뿌리 깊은 나무.
- 성백인·김주원·고동호·권재일 (2010), 『중국의 다구르어와 어빙키어의 문법·어휘 연구』 (Grammar and Lexicon of Dagur and Evenki Spoken in China) (대우학술총서 597), 아카넷.
- 세레브레니코프 (B. A. Sérebrennikow) (1972), *Allgemeine Sprachwissenschaft* (II, III), Fink.
- 손호민 (Homin Sohn) (1994), *Korean*, Routledge.
- 손호민 (1999),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손호민 (2008), 「한국어의 유형적 특징」, 『한글』 282, 61-96.
- 송재목 (Jaemog Song) (1997),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Khalkha Mongolian*, PhD dissertaion, SOAS, University of London.
- 송재목 (2007), 「증거성과 주어 제약의 유형론」, 『형태론』 9.1, 1-23.
- 송재정 (Jae Jung, Song) (2001), *Linguistic Typology- Morphology and Syntax*, Pearson Education.
- 송재정 (Jae Jung Song) (2001)/ 김기혁(2009) (역), 『언어유형론』(Linguistic Typology), 보고사.
- 쇼펜 (T. Shopen) (ed) (1985), *Syntactic typology and linguistic description*, 2nd ed. Cambridge University.
- 쇼펜 (ed) (2007),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슈테르켄부르크 (Piet Van Sterkenburg) (ed) (2008), *Unity and Diversity of Language*, Benjamins.
- 슬라터 (K. W. Slater) (2003), *A grammar of Mongghuer-A mongolian language of China's Qiughai-Gansu Sprachbund*, Routledge Curzon.
- 스칼리스크카 (V. Skaliska) (1966), "Ein "typologisches Konstrukt", in *TLP* 2, 335-41. reprinted in *Typologische Studien*, ed. by P. Hartmann, 1979, 157-164.
- 스타센 (Leon Stassen) (1997), *Intransitive predication*, Oxford: Clarendon Press.
- 시바타니 (M. Shibatani) (1990), *The languages of Japane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시바타니 · 바이닌 (M. Shibatani and T. Bynon) (eds) (1995), *Approaches to Language and Typ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시소우 (M. Cysouw) (2003), *The Paradigmatic Structure of Person Marking*, Oxford.
- 신용하 (2005), 『한국 원민족 형성과 역사적 전통』, 나남.
- 아이젠베르크 (P. Eisenberg) (1999), *Der Satz: Grundriss der deutschen Grammatik*, Metzler.
- 아이젠베르크 (2006), *Das Wort: Grundriss der deutschen Grammatik*, Metzler.
- 아이켄발트 (A. Y. UAikhenval'd), 딕슨 (R. Dixon) (eds) (2003), *Studies in*

- evidentiality*, Benjamins.
- 아알토 (P. Aalto) (1952), *Einführung in die altaische Sprachwissenschaft*, MSFOU 104: 2.
- 아이켄발트 (Alexandra Y. Aikhenvald) (2004), *Evidenti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알트만 (G. Altmann) · 레펠트 (W. Lehfeld) (1973), *Allgemeine Sprachtypologie*, Fink.
- 앤더슨 (Anderson, John M.) (1973), *An essay concerning aspect*, The Hague: Mouton.
- 엥겔 (Ulrich Engel) (1982), *Deutsche Grammatik*, Heidelberg: Groos.
- 예썩 (B. Jeβing) (Hg) (1994), *Sprachdynamik*. Auf dem zu einer Typologie sprachlichen Wandels, Berlin/ Bochum/ Essen/Leipzig, Gefödert durch die Volkswagenstiftung, Univesitätverlag Dr. N.; Brockmeyer.
- 오노 (Y. Ono) (2002), *Typologische Züge des japanischen* (Linguische Arbeiten 463), Niemeyer.
- 운터베크 (B. Unterbeck) (1992), *Einhundert Jahre Aufzeichnungen zur Numeralklassikation des Koreanischen*. Essen: Universität Essen, FB Sprach- und Lieraturwissenschaft (ProPrinS - Arbeitspapiere des Projekt “Prinzipiem des Sprachwandels” 9).
- 운터베크 (1993), *Kollektion, Numeralklassifikation, Transnumerus*, Frankfurt a Main., Berlin, Bern, New York, Paris, Wien.
- 웨일리 (L. J. Whaley) (1997)/ 김기혁 (2008)(역), 『언어유형론』 (Introduction to Typology: The Unity and Deversity, Sage Publicationa.
- 유동석 (1995), 『국어 매개변인문법』, 신구문화사.
- 유응호 (柳應浩) (1936), 「言語의 形態」, 『正音』 14 (반도문화사 영인본), 1063-1076.
- 이기갑 밖에 (2008가), 『언어유형론』, 태학사.
- 이기갑 밖에 (2008나), 『언어유형론』, 태학사.
- 이기갑 밖에 (2008다), 『언어유형론』, 태학사.
- 이기문(李基文) (1972), 『改訂 國語史概說』, 민중서관.
- 이기문 (1981). 한헌샘의 言語 및 文字 理論, 『語學研究』 17.1, 155-165.
- 이기문 (2002), 『國語史概說』 (新訂版), 태학사.

- 이상익 (Sang-Oak Lee) 밖에 (2002), *Pathway into Korean Language and Culture*, Seoul: Pagijong.
- 이영경 (2003), 「중세국어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에 관하여」, 『형태론』 5.2, 273-95.
- 이영경 (2007), 『중세국어 형용사 구문 연구』, 태학사.
- 이익섭·채완 (1999),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 이준환 (2010), 「중세국어 ㅎ 말음 체언의 형태론」, 『口訣研究』 24, 163-97.
- 이희승 (1955), 『國語學概說』. 민중서관 (『一石李熙昇全集』 1, 2000; 전자출판물 (e-book) 『一石李熙昇』 1, 2008, 서울대학교출판부.
- 제주문화 예술재단 (1909), 『제주어 사전』(개정증보), 제주 특별 자치도.
- 조동일 (1999),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 지식산업사.
- 조동일 (2003), 『지방 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채완 (蔡琬) (1982), 「國語 數量詞句의 通時的 考察」, 『震檀學報』 54·55 (合併號), 155-70.
- 최명옥 (崔明玉) (1976), 「現代國語의 疑問法研究」, 『學術院論文集』 15, 145-74. (『한국어 方言研究의 실제』 — 태학사, 1998, 239-79에 西南慶南方言의 疑問法 研究란 제목으로 실림)
- 최현배 (1937), 『우리말본』, 京城: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 치포논 밖에 (G. Zifonun et al) (1997가), *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Institut für Deutsche Sprache.
- 치포논 밖에 (1997나), *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Institut für Deutsche Sprache.
- 치포논 밖에 (1997다), *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Institut für Deutsche Sprache.
- 코르트만 (E. Kortmann) (ed) (2004), *Dialectology meets typology: dialect grammar from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Berlin: Mouton de Gruyter
- 콕리 (B. Comrie) (1981), *The Language of the Soviet U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콕리 (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2nd edition.
- 콕리 (2001), “Some thoughts on the relation between aspect and Aktionsart,” In A. Barentsen and Y. Poupinin eds (2001), *Functional grammar: aspect and aspectuality, tense and temporality*, München-Newcastle:

- Lincom Europa, 43-50.
- 콤폴리 · 스미스 (N. Smith) (1977), "LINGUA DESCRIPTIVE STUDIES: QUESTIONNAIRE," LINGUA 42, 1-72.
- 코르트만 (B. Kortmann) (ed) (2004), *Dialectology meets typology: dialect grammar from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Berlin: Mouton de Gruyter
- 크로프트 (W. Croft) (2002), *Typology and Universals* (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쿠즈네코프 (P. S. Kuznekov) (1956), *Die morphologische Klassifikation de Sprachen*, Niemeyer.
- 톨러맨 (Tallerman) (2005), *Understanding Syntax* (2nd ed.), Arnold.
- 판 수테르켄부르크 (Piet Van Sterkenburg) (ed) (2008), *Unity and Diversity of Language*, Benjamins.
- 포페 (N. Poppe) (1954), *Grammar of Written Mongolian*,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피헨트레거 (M. A., Pöchtrager), 보돔 (C. Bodóm), 드레슬러 (W. U. Dressler), 슈바이거 (T. Schweiger) (1998), "On some inflectional properties of the agglutinating type illustrated from Finnish, Hungarian, Turkish inflection," *Wiener Linguistische Gazette* 62/63, 57-92.
- 포르가스 (T. Forgas) (2001), *Ungarische Grammatik*, Wien: Edition Praesens.
- 플랑크 (F. Plank) (1991), "Holistic typology: The Gabelenz puzzle," *Folia Linguistica* 25-3/4, 421-458.
- 플랑크 (1999), "Split Morphology: How agglutination and flexion mix," *Linguistic Typology* 3, 279-340.
- 플랑크 (2006) · 카박 (B. Kabak) (2006), "Where flexion encroaches on agglutination in Turkish and Korean," Yong-Kun Ko et al. (eds) (2006), *Whither Morphology in the New Millennium*, Pagijong Press, 123-152.
- 플린지언 (V. A. Plungian) (2001), "Agglutination and flection,"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1, 649-78.
- 플레미히 (W. Flämich) (1991), *Grammatik des Deutschen*, Berlin.
- 하스펠마트 (2000), "An empirical test of Agglutination Hypothesisism,

- presented at the 9th International Morphology Meeting, Wien.
- 하스펠마트 (2002), *Understanding Morphology*, London: Arnold.
- 하스펠마트 (2008), “Framework-free grammatical theory, in Bernd Heine and Heiko Narrog (Editor)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Analysis*.
- 하스펠마트 (곧 나옴), “An empirical test of Agglutination Hypothesis”.
- 하스펠마트·쾨니히 (M. Haspelmath, and E. König) (eds) (1995), *Converbs in cross-linguistic perspective: structure and meaning of adverbial participles, gerunds*, Berlin: de Gruyter.
- 하스펠마트 et al. (eds) (2001),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An International Handbook*, Berlin: W. de Gruyter.
- 하이돌프 밖에 (K. E. Heidolph et al.) (1981), *Deutsche Grammatik*, Berlin: Akademie Verlag.
- 헬비히·부샤 (G. Helbig und J. Buscha) (2004), *Deutsche Grammatik*, Berlin: Langenscheidt.
- 허 응 (1958), 「挿入母音攷」, 『論文集』 7(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과학편), 83-152.
- 허 응 (1963), 『中世國語研究』, 정음사.
- 허 응 (1995), 『20세기 우리말 형태론』, 샘문화사.
- 허 응 (1999), 『20세기 우리말 통어론』, 샘문화사.
- 후쿠이 (N. Fukui) (1995), “The Principle s-and Parameters Approach: A Comparative Syntax of English and Japanese”, 시바타니·마이넨 (eds) (1995), 327-372.
- 휘쎄인 (HÜSEYİN KIRDEMİR) (2002), 「터키어와 한국어의 시제·동작상·서법의 유형적 연구」, 『형태론』 4.1, 103-28.

***Correspondence Address:***

**Yong-Kun Ko**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s Building No 150, 1 Gwanag-ro Gwanag-gu,

151-742, Seoul Korea.

*Acknowledgements* : This article was written with the support of **Renewal Scholarship of Alexander-von-Humboldt-Foundation** during October and November, 2009. In the process of writing it, Professors F. Plank (Konstanz), B. Comrie (Leipzig) and M. Haspelmath (Leipzig) helped me very much. Professors J. Song (Otago), a language typologist, J. Kim (Seoul), a Tungusologist, J. Song (Osaka), a Mongolist, and R. King (Vancouver), a Korean linguist offered me much helpful informations via e-mail. I am very grateful to them. However, all mistakes in my paper are mine.

#### abstract

Ko, Yong-Kun, 2009,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linguistic typology and the grammatical desription of individual languages, *Kwanak Omun Yonku* 34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establish a model of grammatical description for individual languages based on linguistic typology. In doing so, Korean can serve as an important point of reference; furthermore, ‘Altaic’ language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compare them with Korean from the viewpoint of linguistic genealogy and linguistic typology. Korean belongs to the agglutinative language type morphologically and to the SOV language type syntactically. Middle Korean shows global morphophonemic alternations; different endings are selected according to the transitivity of stems; prefinal endings are inserted in between the stem and final ending in the manner of affixation. Considering the above points, Middle Korean can be treated as a subordinating agglutinative language. 1st-person and 2nd-person markers are distinguished in declaratives and interrogatives;

the object marker is realized in relative participial clauses. Japanese also shares a number of inflectional properties with Middle Korean. Japanese and Korean are quite distinct from Chinese morpho-syntactically, but since all three are contiguous to each other, they share a number of elements that can be united under the label Nord-Ost Asiatischer Schrift-Sprachbund (North east Asian Script-linguistic Area). As a case study, I compare Korean TAM (Tense, Mood and Aspect) with 'Altaic' languages such as Japanese, Mongolic, Turkic, and Tungusic; however, there are no commonalities in the either realization or forms. While TAM in Altaic languages beginning with Japanese tends to be realized in sentence-final position, Korean TAM is realized in prefinal position.